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탈북자 출신으로 첫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의원은 얼마 전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다루러 국회에 들어갔는데 진보당을 보니 대한민국 이념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더 급선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31일 19대 총선 150자 정책대결문에서 "탈북자 복송을 확실하게 비판함으로써 국가 인권의지를 명확히 하고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책임,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대중국 설득 및 국제적 압박외교를 병행해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99년 10월 발표한 그의 사상 전환문 속 고백은 단적으로 주사파와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해 우리들 생각은 과거의 거울에서 떠나지 않는다.

19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NL주사파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와 북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이념 투쟁에는 북한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 386세대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대부분 불리는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그가 NL 핵심세력이던 지하조직 '민혁당(民革黨)'을 97년 해체하고, 99년에 전향하면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80년대 대학운동권에 민족자주, 반미주의, 주체사상에 불을 당긴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89년 7월 남파공작원에 포섭돼 북과 연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NL주사파는 북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주사파 운동 주동자 김영환씨는 91년 밀입북, 두 차례나 김일성과 만나고 각종 교육까지 받고 돌아와 활동했고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됐다고 한다.

1999년 10월 발표한 그의 사상 전환문 속 고백은 단적으로 주사파와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해 우리들 생각은 과거의 거울에서 떠나지 않는다.

19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NL주사파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와 북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이념 투쟁에는 북한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 386세대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대부분 불리는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그가 NL 핵심세력이던 지하조직 '민혁당(民革黨)'을 97년 해체하고, 99년에 전향하면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80년대 대학운동권에 민족자주, 반미주의, 주체사상에 불을 당긴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89년 7월 남파공작원에 포섭돼 북과 연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NL주사파는 북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주사파 운동 주동자 김영환씨는 91년 밀입북, 두 차례나 김일성과 만나고 각종 교육까지 받고 돌아와 활동했고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됐다고 한다.

1999년 10월 발표한 그의 사상 전환문 속 고백은 단적으로 주사파와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해 우리들 생각은 과거의 거울에서 떠나지 않는다.

19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NL주사파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와 북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종북 반미주의 '진보' 일 수 없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이념 투쟁에는 북한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 386세대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대부분 불리는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그가 NL 핵심세력이던 지하조직 '민혁당(民革黨)'을 97년 해체하고, 99년에 전향하면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80년대 대학운동권에 민족자주, 반미주의, 주체사상에 불을 당긴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89년 7월 남파공작원에 포섭돼 북과 연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NL주사파는 북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주사파 운동 주동자 김영환씨는 91년 밀입북, 두 차례나 김일성과 만나고 각종 교육까지 받고 돌아와 활동했고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됐다고 한다.

1999년 10월 발표한 그의 사상 전환문 속 고백은 단적으로 주사파와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해 우리들 생각은 과거의 거울에서 떠나지 않는다.

19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NL주사파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와 북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이념 투쟁에는 북한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 386세대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대부분 불리는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그가 NL 핵심세력이던 지하조직 '민혁당(民革黨)'을 97년 해체하고, 99년에 전향하면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80년대 대학운동권에 민족자주, 반미주의, 주체사상에 불을 당긴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89년 7월 남파공작원에 포섭돼 북과 연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NL주사파는 북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주사파 운동 주동자 김영환씨는 91년 밀입북, 두 차례나 김일성과 만나고 각종 교육까지 받고 돌아와 활동했고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됐다고 한다.

1999년 10월 발표한 그의 사상 전환문 속 고백은 단적으로 주사파와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해 우리들 생각은 과거의 거울에서 떠나지 않는다.

19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NL주사파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와 북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고루한 사상과 짓가락처럼 앙상하게 마른 북한 어린이들의 팔다리를 보고서 우파로 전향 했다.

그리고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오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대면서 중국정보당국에 의해 다른 3인과 함께 체포돼 단둥 국가안정청에 강제 구금중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정치를 하는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NL주사파 진보는 기층민 위한 이념 필요

종북 주사파 국회 진출 막아야 민주주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

종북주의자라면 이것은 분명 '진보'라고 할 수 없다.

진보는 가난한 서민이나 어려운 노동자 등 사회 기층민을 위한 이념이나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통합진보당은 첫째 북한을 먼저 추종한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의례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미군철수, 한미동맹의 해체를 내세운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종북(從北) 보다는 종미"가 더 문제다.

셋째는 민족지상주의다. 이 주장 앞에는 민주적 절차나 합리적 방식의 문제 해결방안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사물을 보는 가치 기준이 보편타당성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교조주의에 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런데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비단 통합진보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걸쳐 확산돼 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하고 이념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극한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들 종북, 종북 좌파들의 반민주적, 반국가적인 말과 행동에 기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수가 대(代)를 거듭할 수록 늘어남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불교는 중생을 위하고 잘 살게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특정 계급이 아닌 국민, 즉 중생을 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정치적 이상을 둔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불교는 다 같이 자유와 평등을 생명으로 삼는다. 불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절대불변의 이유다. 이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자.

조명철 의원은 귀순하기 전 김일성대학 교수로서 북한 사회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그가 이들 종북 세력을 세상 경계하는 진정한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발언대

'참회합니다' 전 불자 운동 펼치자

ID불자여 바로보아라 참회를 하려면 포살법회서 해인총림을 비롯한 제방 사찰에서 대중들 앞에 할 것입니다. 모든 소임을 놓고 10년은 걸망을 메고 선방 등에서 공부만을 할 것입니다.

ID현 뜻을 모을 때 입니다. 이번 일로 불교계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종단이나 각 신도회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부대중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난과 논쟁거리를 스스로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ID길상 부·실장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총무원장도 자리를 스스로 내려놔야 할 듯 싶습니다. 불자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ID강일경 도박스님들, 몰래 카메라 설치자, 모두 종단에서 영구퇴출 및 법적 구속하십시오. 또 정신적 스승이신 방장스님 49세에 참석하기 위해 왔으면 큰스님을 생각 하면서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ID종혜처사 지나가는 폭풍! 도가 높아지려는 마치 지나가는 폭풍이 아닐런지요. 부디 어려움 극복해나갑시다.

ID삼계도사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잠은 4시간 자고 아침, 점심 2기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8시간 화두 쟁기고 좌선하면 반드시 도를 통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진을 계속하면 자신의 불성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ID바람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자제가 중요합니니다. 신도들은 가사장삼을 걸친 스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로 봅니다. 출가자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ID총무원 대적 쯤 세워라. 성호가 저렇게 떠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도 총무원은 짝소리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무력함에 속이 터집니다. 뭐라고 대항 쯤 하세요.

ID참된 불자가 되고자 전국 교구 모든 절, 모든 불자님들께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 탓이오' 참회합니다' 전국 운동을 벌여 한국불교를 살려야 합니다.

社說 매일 매일을 부처님오신날처럼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마무리됐다. 승려 도박 사태로 여는 때보다 뒤늦었지만, 전반적으로 별 무리 없이 잘 치러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소외 계층과 이웃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아진 것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 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쌍용차 노조,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5월 2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초청해 회향을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는 공덕을 쌓게 하자는 취지였다.

천태종도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 총본사 구인사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종교 지도자들과 다문화 가족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고 수행공동체 정토회도 이웃종교인, 사회 인사들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대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그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복지관, 개별 사찰에서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봉축 나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사회적인 사업을 통한 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일인을 담당하는 종교가 가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모습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들은 단순히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속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에게 지혜를 증득케 해 자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수행 정진은 쉼 없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듯이 자비행도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 불자들이 진정한 불교도를 원한다면 매일 매일을 부처님오신날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불교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앵규 경허' 등 TV의 봉축 특집

세계적인 불교학 거장인 부처님오신날 안방극장을 통해 한국을 찾았다. 그 주인공은 평화인권 운동가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 · 71)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78) UC버클리대 명예교수이다.

서먼 교수는 5월 25일 방송된 MBC 스페셜 부처님오신날 특집 '앵규 경허-禪을 묻다' 편에서 경허스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경허스님 순례기, 한국 선불교의 큰스님들을 만나 경허 선사상이 갖는 이 시대의 의미를 들었다. 특히 설정 방장 스님과의 대담에서는 경허 스님이 한센병 환자 와도 방을 같이 썼다는 일화가 가장 감동스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경허 선사 살아계셨다면 꼭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KBS-1TV서 5월 27일 재방영된 대장경 천년 '다르마'에서 랭카스터 교수는 "대장경이 없었다면 불경 네트워크의 그 어떤 집적물도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천년 전의 신기술인 대장경과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나가는 게 개인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랭카스터 교수는 50여년째 불교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듯 양질의 불교 소재 프로그램을 공중과 방송에서 제작해 방영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불교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 불교 언론 매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됐다. 현재 교계 언론 환경은 해외 관련 큰 기획을 제작하기에 다소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획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눈을 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이 두 프로그램은 불교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 불교 언론 매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됐다. 현재 교계 언론 환경은 해외 관련 큰 기획을 제작하기에 다소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획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눈을 떠야 할 때인 것 같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나눔과 공생으로 큰 하나 되어가는 공생실천 캠페인 '공생장터' 범우님들의 경기 부양과 재능 나눔을 위하여 현대불교 협찬으로 공동 운영 쇼핑몰 '공생장터' 를 운영합니다. 범우님 또는 신행단체에서 생산하시는 제품과 상품, 농산물, 문화 활동, 재능과 기능 등 홍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